

Lanxess, EVM 생산능력 30% 확대

Lanxess가 독일의 EVM(Ethylene Vinyl Acetate Copolymer) 증설에 900만유로를 투입한다.

Lanxess는 독일 Dormagen에 위치한 EVM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30% 가량 확대해 2012년 하반기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레바프렌(Levapren), 레바멜트(Levamelt) 등 EVM 제품 생산능력이 1만50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레바프렌은 오일과 열 저항성이 강한 난연성 무 할로젠(Halogen) 고무 제품으로 주로 선박용 전선 및 케이블, 자동차 호스 및 패키징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하이펙스(HIPEX) 등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새로운 폴리머 부품에 채용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접착제 기반 EVM인 레바멜트는 가공성이 좋고 세밀한 적용이 가능해 전자제품, 산업용 보호필름에 쓰이는 투명·접착 필름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Lanxess의 기능성 고무제품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요르겐 군터는 “EVM 투자를 통해 전선 및 케이블 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할로젠 난연성 폴리머와 달리 EVM은 할로젠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기능성 고무제품 사업부는 고성능 폴리머 사업부문에 속해 있으며 고성능 폴리머 사업부문은 2009년 23억 8800만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화학저널 2010/11/29〉